

||주최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주관 : 전북사학회 ||후원 : 한국연구재단



모시는 글

초록빛이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 설립된 이후, 협동번역사업과 자료조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12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근현대 지역공동체변화와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전통적 정주공간으로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러한 변화의 기초에 담겨있는 유교의 기능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2015년 5월 15일에 "근대의 시작, 도시 개발과 종교, 문화 I"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의 도시개발과 지역공동체, 이데올로기 변화를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08. 26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장 변주승

■ 일시 : 2015년 8월 26일(수) 13:00~18:30

■ 장소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204호

13:00~13:20 ||등록 및 접수

사회 : 문경득(전주대)

13:20~13:30 ||개회사

13:30~14:00 한불조약 이후(1886~1909) 전북지역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그 특징-교안을 중심으로- 서종태(전주대)

14:00~14:30 이기(李沂)와 황현(黃玹)의 척사론(斥邪論)과 동학인식(東學認識) 원재연(전주대)

14:30~15:00 한말 유학자의 위기의식과 근대문명 담론 비판 -간재 전우의 양계초 비판을 중심으로- 김건우(전주대)

15:00~15:10 휴식시간

15:10~15:40 1894~1910년 근대기록 구조의 중층성과 종속성-전북지역 전략적 도시개발 기록을 중심으로- 김경남(전주대)

15:40~16:10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진출과 농촌사회 -『군산 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규수(고려대)

16:10~16:40 식민지기 전라북도 만경강의 하천개수사업-'식민지 공공성(公共性)'을 중심으로- 마쓰모토 다케노리(도쿄대)

16:40~17:10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지성-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와 전북 이정욱(전주대)

17:10~17:20 휴식시간

17:20~18:30 종합토론 좌장 :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전병구(전주대) 박학래(군산대) 이천승(성균관대)
이경용(국가기록원) 김윤희(고려대) 정승진(성균관대)
임숙정(전주대)